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3, 디모데전서 2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목회 서신에 대한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 세션 3, 디모데전서 2장에서 로버트 W. 야브로 박사입니다.

우리는 목회서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있고 디모데전서 2장을 곧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아마도 최근 세대의 목회 서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자가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2장 12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남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접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은 범법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가운데 그는 성적 부도덕을 언급하고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동성애, 동성간의 관계를 무질서한 것으로 묘사하며 구약성경에서는 이를 가증한 것으로 불렀습니다. 주석가들은 창의적으로 로마서 1장을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 관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것이 실제로 성경의 더 넓은 범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어떻게 읽는가는 오늘날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의 견해가 얼마나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것이 성경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며 더 이상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의 특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특징과 독특한 영역. 강의 목록 아래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처럼

잘츠부르크라고 불리는 잘츠부르크 선언이 게시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온라인 리소스가 될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독일어권의 유럽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개신교 자유주의와 개신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장문의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인간의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의 주장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유럽과 독일어를 사용하는 서유럽에서 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현대 대학과 매우 높은 문화적 사고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는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성경은 교회 교육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고 나쁜 일이 많이 따르게 되며 한편으로는 그 문서는 성별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신학을 제시하지만 또한 미국 사상가인 Judith Butler와 젠더 이론에 관한 그녀의 연구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소위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에 대한 확언으로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종류의 것들에 대한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약을 투여하고 수술을 하는 등 온갖 종류의 실험도 있었습니다.

글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잘못을 범하더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증오심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음행과 음행과 간음과 동성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은 이것이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계시하신 것이니라 그는 결국 자신의 존재 조건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동성간 성행위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자,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디모데전서 2장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인하고 최종 심판에서 우리 둘 다 얼마나

더 나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고 확장될 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NIV에서 볼 수 있듯이 디모데전서 2장은 전체 장에 예배 지침이라는 단 하나의 제목만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내 화면을 여기 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빨간색 글자를 주목하세요. 그것은 필수사항이자 명령입니다. 우선, 세계 여러 지역에 가보면 아프리카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 중 하나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관한 목회 교육의 첫 번째 요점은 기도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용어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며, 어떤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지만, 성경이 합법화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일 뿐입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계절, 기도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롬, 평화, 번영의 일상 생활에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제자로 성장하고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좋다. 또 칼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에베소에는 수백 명의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배적인 문화는 다신교였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께서 강화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중재자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는 모든 사람 곧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절한 때에 목격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이, 때가 되면 태어난 증인이라는 표현이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잡한 세상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딱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때에 따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Pauline입니다.

Paul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의 이름을 위조한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나는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전령관은 마을의 외침꾼처럼 발표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사도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참되고 신실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에 대해 암시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에서는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이시니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교훈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의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말씀의 종들. 일반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목사는 회중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회중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목사들은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기도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의가 많네요.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공개되면 어떤 차이가 생긴다고 잘 말씀하시죠? 차이점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in his name)는 그의 승인 하에, 그의 면전에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임재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보뿐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관한 2장 지침의 모든 내용은 그것이 기도하는 모임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2장의 끝 부분에서 사물에 관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질문은: 사람들이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의존함으로써 경건한 임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질서 있는 세상을 선호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옛 생활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은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질서 뒤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유일한 촉진자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믿었던 모든 사람과 지금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유일한 대속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입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희망을 두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것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폭넓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일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살롬을 가져다 주신다는 점에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일출을 좋아하고 흠을 좋아하며 기본적인 음식과 삶의 수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물은 일반은총의 자금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물은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분은 중보자이시며 인류의 일부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네 번째, 세 번째로 실례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그 구절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글썄, 내 생각이 맞다면 디모데는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율법 교사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바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기뻐하지 않고 베드로를 카펫 위로 불러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요파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를 위해 그들의 유산의 민족성과 합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트 위로 내려오는 동물들.

하나님은 일종의 기어를 바꾸시거나 구원의 교향곡에서 중요한 변조를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빛에서 열방을 향한 빛으로 사람들 중심에 있게 될 열방을 향한 빛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휴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빛을 전해온 나의 백성 요나는 그와 함께 배에 탄 이교도들에게 빛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이방인 세계로 나가는 교회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교사들로부터 메시아적인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 많은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좌절시키고 밀어내고 싶었고, 바울을 반대해야 했고, 바울의 신용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이러한 반대가 발생하고 사도행전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반대할 때 메시지를 변경하여 문화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현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동안 동성애에 대해 언급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문화가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고보, 베드로, 바나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보는 복음 메시지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구원은 인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구원은 죄의 대속물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문화적 기대에 맞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공중 예배에 대한 방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공중 예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는 몇몇 평론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길게 논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인 회중이 있는 곳마다 기도가 있어야 하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령 문법 모드가 아닌 사실상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는 디모데에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단정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기를 원하며 화려한 머리 모양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에게 합당한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여자는 조용하고 온전한 복종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의 문법적 형식이 더 올바르게 번역될 것이며 많은 번역에서는 여성이 배우도록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NIV에 적합한 방식은 바울이 여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더 가깝지만 문법적 형태는 제3인칭 명령이며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여자가 배우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관찰하는 것은 엄중한 바울이 아니라 여성은 제자이고 디모데는 목사로서 당신의 책임은 이 일이 조용하고 온전한 복종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이 권위를 가르치거나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권위를 행사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일어서기 위해 권위를 빼앗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이미 말했듯이 목회자로서 남자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어떤 권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중. 그는 여자가 조용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배울 수 있도록 조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담이 먼저 맹세했고 그 다음 이브와 아담이 속인 사람이 아니라 여자였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속임을 당하여 죄인이 되었으나

여자가 예절 바르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먼저 8절과 9절로 돌아가서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여자가 옷을 입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관찰은 경건한 예배와 모든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방식으로 살다가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여 다른 모습을 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화난 블로거이거나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정말 똑바로 보입니다. 그것은 위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있기를 원하며 사람들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조용한 남자가 있고 조용한 남자는 없지만 사물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진 남자가 많습니다. 분노로 나옵니다. 많은 남성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며 여성보다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는 교리적 논쟁에서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고 이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수년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내 생각엔 팀 스포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은 종종 훨씬 더 협력적이며 팀으로서 경쟁적이지만 함께 일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남자는 화를 내고 화를 내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으로 디모데는 자신이 논쟁해야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옳은 것을 옹호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타당성을 위해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는 특정 사람들을 반대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디모데가 화를 내야 하거나 디모데가 논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참된 것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는 티모시에게 인내심과 수용을 촉구할 것이며 일종의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냥 과격하게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어도 남자로서 내가 아주 잘 아는 것,

그것은 탐닉하기에 너무나 맛있을 수 있는 분노감에 대한 십자가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매우 의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성경은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종교가 분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놀랍습니다. 분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이시니라. 거기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의 분노는 크게 억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민족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유대교의 관점이나 동성애나 성적 부도덕도 괜찮다는 현대의 관점과 같은 큰 특징에서 반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복음은 일부 가족의 개인 성향에 관해서는 반문화적입니다. 그는 실제로 성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글썄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거나 신이 당신의 행동에서 그런 점을 씻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남성에게 특유의 부적응이 있는 것처럼

여성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출근 준비를 하거나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만 투자하면 거울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정관념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성들이 머리를 다듬거나 화장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모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모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마치 풀이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가질 수 없고, 금을 가질 수 없고, 진주를 가질 수 없고, 값비싼 옷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남성에게 대한 분노처럼 여성에게도 해당된다면 그들은 단지 분노를 입고 교회에 바로 가져오고, 옷이 괜찮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화려하고 문화적 패턴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공언하는 여성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숭배한다면 당신이 남자라면 분노가 누그러질 것입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신을 숭배한다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투영하는지가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 가본 적도 없고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매우 다른 문화에서 매우 다른 경제적 수준, 다른 언어, 다른 인종, 다른 대륙을 관찰했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예뻐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예쁘다. 나는 성경조차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단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성은 짧은 머리, 긴 머리 또는 이런 종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이는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 연중 몇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고 남성이 분노를 통해 자신의 종교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타당한 우려입니다. Paul은 이것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성으로 넘어가면 여성의 학습 욕구가 남성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12절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여기에 큰 장애물이 있으며 나는 이에 대해서 방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나는 서구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주된 역할과 정체성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확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학생 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부 전통, 특히 전례 전통에서 기독교인은 교회에 와서 말하려고 인쇄된 것, 말하려고 계획된 것, 또는 기억한 것을 관찰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배의 행렬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저는 예배에 찬성합니다. 저도 예배식을 좋아하지만 이사야서 1장과 2장이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과 2장은 구약성서에서 예배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냄새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례의 아름다움은 여러 면에서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적 활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른 세대에게 전하는 구약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심어진 것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낮은 규모의 대회이든 높은 대회의 일부이든 단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주로 교회에 간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참여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종의 활동주의로 축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회가 세상의 정의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조건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의 활동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마음의 연결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위선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이것이 모두 혁명적인 이유는 유대교의 정신이 매우 제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때문에 토라를 배우는 초점이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을 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 남자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 마련을 아내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경향에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조용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배우십시오.

그런데 그게 왜 거기 있지? 세부 사항은 없지만 가능성 중 하나는 비공식적이고 잡담이 있었고 예배 분위기가 부족했으며 Paul은 여성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뒷자리에 앉아 소음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학습자로서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교회가 항상 그렇게 잘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 는 많은 설교가 별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책을 읽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매우 활동적인 대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어딘가에 가서 가르치는 설교를 열심히 한다면, 나는 많은 여성들이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들이 종종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패키지에서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배움을 포기합니다.

나는 디모데가 게으른 선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교도 종교가 제자도 종교가 아닌 정신에 맞서 일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단지 실제적인 시민 종교 출신이거나 다른 이단의 신봉자라면 그들은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 메시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것은 이교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제자를 삼는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없다면 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11절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12절과 관련하여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해야 해.”

다시 말하지만, 그녀가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침묵하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내 논평에서 나는 이것이 개그 명령과 같지 않으며 침묵이라는 단어가 그녀가 결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평화로워야 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주변에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상황은 여성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찾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제 간략한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이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기본적으로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정책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평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성들이 가르치는 일인 회중 교육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은 여성이 특히 다른 여성들을 가르쳐야 하고 세상에 있는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귀하의 연락처에 실례합니다. 귀하가 사업가인지, 교사인지, 의료 종사자인지, 법 집행 기관인지, 군인인지, 여성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모임에 함께 모이고 그 한두 명의 여성에게는 회중 교육이나 영적인 감독을 맡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권위의 행사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회적 돌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목양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목양의 일부였지만 그의 목양에는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비전을 캐스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인내심을 갖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감독 기능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분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목자의 목자들 아래에 위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감독하신 것처럼 교회의 목자들도 가르치고 감독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너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너희 위에 세우신 자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교회를 세운 후에 각 회중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여자들은 바울이나 열두 사도와 같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문화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성 사도를 임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그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문화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그들은 회중의 목사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리더십 패턴과 일치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에덴의 결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많은 논란이 있는 13절, 14절, 15절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요약하겠습니다. 회중의 리더십에는 분업이 있는데, 정확히 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지만 13절의 표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은 속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먼저 속인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속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속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명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만약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말하는 것은 추측일 것입니다. 내 말은,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순전한 추측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신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타락이 있었고 바울은 여기서 타락 때문에 노동의 분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한 노동 분업은 이미 창조 명령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서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두 번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형상에 느낌표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시이지만 두 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것을 두 번 언급했을 때 그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2인칭 명령문, 2인칭 복수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주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는 “여자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는 우리의 조상이자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의 죄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남자가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형벌을 받아 마땅한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체성에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내면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 마지막 날에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세계 대부분과 서구에서 젠더에 관한 전쟁이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과 그 규범성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선언은 인간의 생태와 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규범성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계속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뉠 수 있습니까? 글썄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자비로운 조건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계속해서 아버지성과 어머니성,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비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일은 이미 서구 사회의 혼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 범죄, 대량 학살, 성적 성별 위화감은 모두 붕괴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것을 향한 진전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기꺼이 회개해야 할 불길한 것으로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성경은 매우 예배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비참한 직업인지에 대해 많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평균 신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좋은 목사라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거룩하게 성장했지만, 혼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부분적으로 분개하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높은 권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썄요,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제시한 목사들이 있었고, 목사가 되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목회 형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일반적인 명령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죄 많은 남성의 교만의 관점에서 볼 때 타락한 교회이지만, 복음이 주는 마음의 변화로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의 영광스러운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안에서 그들이 함께 하는 봉사를 나는 그것을 질서 있는 관계적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을 때때로 불리는 것처럼 보완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순서적 관계형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 아래 언약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활발하다면 결혼 서약을 맺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제자이며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 개인, 그룹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며,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다른 성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성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결혼입니다. 그런 다음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모이는지 알게 되며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고양하고 가능하다면 아내를 어머니로 삼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남편의 지휘하에 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장로나 감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회중을 지도하고, 회중의 기도 분위기를 책임지고, 회중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강사이자 안내자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많은 현대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통역사와 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인 보완주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이해 속에서 오직 남자만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과 신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등주의라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글쎄, 사회는 이 이상으로 발전했으며 바울이 그런 글을 쓰게 만든 에베소의 지역적 상황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이 글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Paul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권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바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갑자기 지난

몇 세대 동안 남자와 여자에 차이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그 차이가 신약 시대와 너무 달라서 새로운 교회 질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우리 사회를 원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새로운 결혼 순서.

새로운 신학적 인류학 질서에서 그것은 모두가 해야 할 질문이다.

답변. 모든 교회는 우리가 동성애자를 안수해야 하는지, 동성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을 목사로 안수해야 합니다. 그 견해는 이제 사회에 대해 강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정렬된 관계형 시너지"에 대한 짧은 설명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디모데전서 2장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확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아코노스였던 피비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사의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며 그것은 또 다른 논의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고 바울에게 사용된 단어는 디모데에게 사용된 단어, 디아코노스 또는 디아코니아는 노예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의 사역자,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목회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디모데전서 2장은 로마 세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20세기 서구까지 거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교회의 예배 순서와 교회 조직의 순서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세한 순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에 대한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 세션 3, 디모데전서 2장에서 로버트 W. 야브로 박사입니다.